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3년 7월 10일(수) 09:00 배포시
담당자	전홍택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02-958-4201, htchun@kdi.re.kr) 이태연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협력사업실 연구원 (02-958-4230, tylee@kdi.re.kr)
배포일시	2013년 7월 10일(수) 09: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2-958-4030, press@kdi.re.kr)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전파세미나

- 발표 요약 -

- 일 자: 2013년 7월 10일(수)~11일(목)
- 장 소: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3층) 및 파크볼룸(5층)
- 주 최: 기획재정부
- 주 관: KDI · 한국수출입은행

- KDI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10주년을 기념해 7월 10, 11 양일간 기획재정부가 주최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전파세미나」를 한국수출입은행과 공동 주관, KSP의 성과를 공유하고, 최근 글로벌 지식 공유(Knowledge Sharing) 동향 점검을 토대로 향후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동반 성장을 목표로 한 KSP 발전 방향을 모색
- 첫날에는 '최근 지식 공유의 글로벌 동향', 'KSP 성과 및 향후 전망' 주제의 KSP 10주년 기념세미나 및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사업' 및 'KSP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 주제의 분과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 KSP 10주년 기념 세미나: 전문가들의 발표를 중심으로 최근 글로벌 지식 공유(Knowledge Sharing) 동향을 점검하고, 10년 간의 KSP 사업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향후 보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향 및 구체적 실천 전략을 모색
-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분과세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등 4개 중점지원국과 온두라스, 멕시코, 가나, 루마니아 등 4개 일반지원국 대상 사업 결과 공유(2012년 총 33개국 대상 147개 주제의 정책 연구 및 자문 사업 수행)
- ‘국제기구와의 공동건설팅사업’ 분과세션: 한국의 KSP와 국제기구의 기술협력사업을 연계하여 삼각협력사업 형태로 2012년도에 진행한 13건 가운데,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 진행한 교통, ICT, 인프라개발, 전자교육 사업에 관한 발표 및 토론
- ‘KSP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YKSP)*’ 분과세션: ‘공기업 효율화’, ‘인도네시아 민관협력’, ‘싱크탱크의 역할 및 직업훈련과 이터닝’ 주제의 YKSP(Young KSPians) 1기 활동 수기 발표

* 2012년 시작된 YKSP는 대학·대학원생들이 KSP 사업에 직접 참여, 다양한 실무경험을 통해 국제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차세대 개발협력 리더 육성 프로그램

□ 둘째 날에는 ‘정보기술(IT), ‘금융’, ‘사회간접자본(SOC) 및 산업기반 조성’의 주제별 세션을 통해 KSP 모듈화 사업과 국가정책자문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

- 특히, 민간 부문의 토론 참여를 통해 KSP 효과의 민간부문 확대와 민간 부문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 공감대를 형성

□ 세미나에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준경 KDI 원장,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장, 진 념 삼정 KPMG 고문 겸 前 부총리, 전홍택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로버트 플로이드 세계은행연구소(WBI) 연구본부장, 마리오 페치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센터 소장,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샤틀쉬 찬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교수, 린타로 타마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 빅토르 바르가스 페루 국가전략위원회 대통령실자문위원회 회장, 판 응옥 마이 푸옹 베트남 개발전략연구소 부원장, 바쉬르 메사이트파 알제리 총리실 전략기획장관, 강문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관련 분야 고위 공무원, 국내외 석학, KSP 수석고문 및 연구진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임.

❖ 첨부 1 프로그램

❖ 첨부 2 발표 및 토론 요약

❖ **첨부 1 프로그램**

첫 날. 7월 10일(수)

시 간	일 정
08:30~09:00	등록
09:00~09:30	개회식 개회사 김준경 KDI 원장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장 축사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2년 KSP 사업경과 소개 전홍택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09:30~09:50	기조연설 진념 삼성 KPMG 고문, 前 부총리
10:10~11:40	KSP 10주년 기념 세미나-세션 1. 최근 지식 공유의 글로벌 동향 좌 장 김기환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구교수 발 표 로버트 플로이드 세계은행연구소(WBI) 연구본부장 마리오 페치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센터 소장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샤틀쉬 찬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교수
11:40~13:00	오 찬
13:30~14:30	KSP 10주년 기념 세미나-세션 2. KSP 성과 및 향후 전망 좌 장 린타로 타마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 발 표 빅토르 바르가스 페루 국가전략위원회 대통령실자문위원회회장 판 응옥 마이 푸옹 베트남 개발전략연구소 부원장 바쉬르 메사이트파 알제리 총리실 전략기획장관 강문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4:30~14:40	KSP 10주년 기념 세미나 Wrap-up 전홍택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시 간	일 정					
15:00~16:20	[분과 세션] KSP 활동과 사례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KSP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 (YKSP)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및 중동		
	캄보디아	온두라스	알제리	사우디 아라비아	미주개발은행 페루	주제별 발표
				미주개발은행 콜롬비아		
16:40~18:00	인도 네시아	멕시코	가나	루마니아	아시아개발은행 몽골	활동수기 발표
					아프리카개발은행 남수단	

둘째 날. 7월 11일(목)

시 간	일 정		
[주제별 세션] KSP와 경제협력			
	정보기술 (IT)	금융	사회간접자본(SOC) 및 산업기반 조성
09:00~09:30	KSP 모듈화사업 주제 I 한국의 전자정부 제도	KSP 모듈화사업 주제 II 1980년대 한국의 안정화 정책	KSP 모듈화사업 주제 III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09:3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티오피아: 전자정부 및 IT 기술 도입전략 수립 • 미얀마: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세관 자동화 • 온두라스: 전자조달을 위한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신용평가 등록 데이터의 품질 개선 방안 • 몽골: 경제의 외환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모형 개발 • 탄자니아: 예금보험 시스템의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롬비아: 과학기술 단지 구축방안 • 카자흐스탄: 산업기반 신용보증제도 도입 제언 • 베트남: 항만 현대화 전략
12:00~13:30	오 찬		

❖ 첨부2. 발표 및 토론 요약

- 첫날, 7월 10일(수) -

KSP 10주년 기념 세미나 세션1. 최근 지식 공유의 글로벌 동향

발표 1. 국제 지식 공유와 세계은행

로버트 플로이드 세계은행연구소 연구본부장

- 기존 개발협력 패러다임 하에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 정부에 불투명하고 비생산적인 금융 및 개혁 방안을 제시
- 지식공유 및 원조의 수혜자이자 공여자인 BRICS와 일부 중진국이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주체로 등장함.
- 1955년부터 세계은행연구소는 실무자 역량 강화, 지식공유 네트워크 구축,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시민 참여, 국제협력기구 간 공정한 경쟁 등의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참신하고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을 제시
- 지식공유는 원조 수원국, 공여국 및 국제기구 모두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 수원국은 새로운 개발 정책 방안을 통해 상호이해와 팀워크 증진을 비롯한 다양한 긍정적 원조 효과를 창출
 - 공여국은 지식공유를 통해 자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폭넓은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음.
 - 국제기구는 기구 간 협력과 지식 공유를 통해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

- 세계은행연구소는 많은 국가의 개발 경험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 세계의 세계은행 사무소를 통해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개발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 여러 국가의 발전 전략을 수집, 체계화해 워크숍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파함.
- 특히, 46개 국가에 설치된 세계은행 사무소의 지식공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실질적인 개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발표 2. 경제발전공유사업(KSP)의 경험과 정책과제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대표적인 성과는 아래와 같음.
 - 2008년, 2009년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경제특구 설립 제안에 한국 정책자문팀이 주요한 역할 수행
 - 2010년, 2012년 몽골의 거시경제 관리, 예금보험 제도, 예비타당성 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
 - 2008년 쿠웨이트 5개년 개발계획에 한국 연구진의 계획안 반영
 - 2007년, 2008년 도미니카공화국 수출 진흥 및 수출역량 배양을 위한 정책자문 결과, 대통령 주재 수출 및 투자민관 협의회가 설치됨.

- KSP 성공을 위한 요건은 1)적극적인 리더십, 2)각료급의 책임감, 3)의사소통 및 조율 능력, 4)명확하고 세부적인 사업 범위 확정
 - 2006년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의 KDI 방문 이후 KSP에 대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진 데서 보듯, 협력대상국 지도자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지원은 KSP 성공의 중요한 요건
 - KSP 참여에 대한 정부 지도자의 의지가 강한 경우에도, 고위 각료 급 공무원의 이해와 협력이 없이는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협력대상국 현지 최종보고회에서는 보다 정확한 통역으로 내용 전달의 효과성을 제고키 위해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사용

- 협력대상국이 광범위한 사업 주제를 제안하는 경우에도 한정된 자원과 시간의 제약을 고려, ‘공공 조달시스템의 전문가 양성’, ‘국가 회계 시스템의 향상’ 등과 같이 명확하고 세부적인 사업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을 제고

발표 3. 호주 공적개발원조 수원국과 원조 이유

사티쉬 찬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교수

- 호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수원국의 빈곤도가 아닌 지역적 근접성 및 미국의 원조 규모에 따라 결정됨.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집중된 호주의 공적개발원조 중 약 1/4이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 OECD DAC 자료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는 1인당 GDP가 이라크와 솔로몬제도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지난 5년간 호주로부터 더 큰 규모의 원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수원국 원조 규모 배분의 결정요소는 ‘효용의 극대화 (Maximum Utility)’
 - 호주국제원조기구(AusAID)는 자국의 공적개발원조의 목표를 “호주의 국익에 기반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것”으로 명시함.
 - 나아가,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의 목적을 1)경제 성장 촉진, 2)거버넌스 개발, 3)인적자원 투자, 4)지역안정성 및 협력 추구 등으로 분류함.
 - 헤도닉함수(hedonic regression)를 통해, 수원국 원조 규모가 각국의 개별적 특성이 공여국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결정되는지 이해할 수 있음.
 - 헤도닉 함수 분석 결과, 호주의 공적개발원조가 캔버라*와의 물리적 근접성 및 미국의 양자 원조 규모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

* 캔버라 (Canberra): 호주의 행정수도

- 종합적으로, 호주는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공적원조 대상국가 중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이들 중 빈곤도가 높은 국가들을 보다 많이 원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호주의 '양자원조 효율성(Effectiveness)'을, 공여국의 이해를 배제한 채 수원국의 필요에만 치우쳐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음.

KSP 10주년 기념 세미나

세션2. KSP 성과 및 향후 전망

발표 1. KSP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페루의 사례

빅토르 바르가스 페루 국가전략위원회 대통령실자문위원회장

- 지난 10년간 KSP의 주요성과는 1)개발협력 방법 및 사업주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대, 2)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지식공유네트워크 구현, 3)전략적인 R&D를 위한 혁신적, 실용적인 플랫폼 마련, 4) 글로벌(glocal)한 관점의 접근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글로벌(gloc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에서 유래한 조어로서, KSP의 경우 한국의 개발과정에 대한 지식의 공유/전파 기능 및 5개 대륙, 33개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발협력네트워크 등의 글로벌적인 요소와 협력 대상국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는 로컬적인 요소를 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페루 국가전략위원회(CEPLAN)와의 협력 하에 진행된 KSP는 새로운 경제개발전략 구상에 크게 기여했음.
 - 특히 2011~2013년에 걸쳐 알파카, 커피,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과 같은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정책자문을 제공
- 향후 KSP는 지식 뿐 아니라 기술의 전수, 보다 실용적인 정책자문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 전문가 현지파견 등을 통해 협력대상국의 역량강화 프로세스를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임.

- 페루는 1)하이테크 산업교육기관 설립 등 고급 산업교육, 2)지식공유시스템 개발, 3)전략적 계획 구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4) 기술예측 및 예측방법론 개발, 5)지역·국가 기획처의 전략적 계획 수립을 도모하는 인증 프로그램 개발 등 다섯 개 분야에서 KSP를 통한 경제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함.

발표 2. 지난 10년간 베트남 KSP 사업 성과 및 향후 10년을 위한 제언

판 응옥 마이 푸옹 베트남 개발전략연구소 부원장

- 베트남은 2004년부터 3개 주제의 KSP를 성공리에 진행
 - 2004~2005년: 베트남 시장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 제언
 - 2009~2011년: 중장기적 경제사회개발정책 수립
 - 2012~2013년: 2011~2020 10개년경제사회발전전략(SEDS), 2011~2015 5개년경제사회발전계획(SEDP) 수립 지원

-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36개 주제의 연구 및 총 4회의 역량강화연수를 진행했으며, 매년 중간보고회,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 특히 2009~2011년도 사업 최종보고서가 높게 평가 받음.

- 베트남 KSP의 주요성과
 - 베트남 중장기 정책 수립과 분야별 정책결정자 및 연구진 역량 제고
 - 2005년의 '베트남 외자조달 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 수출입은행 사례를 통해 베트남 수출입은행 설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
 - 한국과 베트남 정부부처 관계자, 전문가, 연구원 간 활발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강화

- 베트남 KSP는 2020년 개발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 관련기관 설립, 다양한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 발전 과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정책자문을 기대함.

* 10개년 경제발전전략에서 언급된 베트남 2020년 개발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2020년까지 현대화에 기반한 산업국가로의 발전

- 향후 KSP는 1)보다 정확한 협력대상국의 문제와 필요 파악을 토대로 2)해당 분야의 확실한 비교우위나 유사경험에 근거해 자문을 수행해야 하며, 3)사업종료 후 성과공유 및 평가의 장 확대 및 4)KSP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자금 확충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임.

발표 3. 알제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바쉬르 메사이트파 알제리 총리실 전략기획장관

□ 알제리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한국을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여 2006년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의 전수를 요청

○ 알제리와 유사한 역사적 배경(식민 통치)을 거쳐 최단기간 시장경제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의 발전 사례를 모델로 알제리 정부는 2006년부터 한국과 KSP 사업을 진행

○ 2006년, 2008~2009년, 2011~2012년 3회의 KSP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2012년도 KSP*는 알제리 독립기념일 50주년을 기념한 '알제리 2030 비전' 수립을 지원하는 의미를 가짐.

* 2012년도 KSP 주제: 1)알제리 국가비전 2030 수립 지원, 2)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3)알제리 교육발전 수립 계획, 4)알제리 보건부문 비전 2030 수립, 5)알제리 중장기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와 제도의 강화방안: 핵심적인 도전 과제와 우선적 정책대안 모색, 6)알제리 국토개발구상

□ 알제리 KSP의 정책자문은 특히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 내에서 알제리의 경제·사회적 입지 강화를 목표로 함.

○ '2030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 추진을 통해 OECD 기준 평균 1인당 소득수준 달성 및 MENA 지역 내 GDP 기준 가장 부유한 국가로의 부상을 목표

- 203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 7% 및 1인당 소득성장률 6% 달성

□ 2013년도 KSP는 '알제리 2030 비전'과 관련해 알제리개발연구소 (Algeria Development Institute) 설립, 5개년경제개발계획(EDP) 이행 등과 같은 심화 세부 주제를 다룰 예정

- 향후 알제리 KSP는 1)경제발전 비전 수립 및 시행, 2)국가 내 기관별 상호보완적 협업, 3)한국의 고급인력 양성 등 한국 경제발전사례 공유와 양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

발표 3. KSP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강문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기획재정부와 KDI는 캄보디아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EF)와 협력하여 2006부터 KSP를 진행
 - 캄보디아는 보다 전략적인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2010년부터 KSP 중점지원국가으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에 중점지원사업 3년차를 맞아 '기술인력 양성', '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가공 산업 R&D' 등 총 다섯 개 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

- 캄보디아 KSP 정책자문의 주요성과는 캄보디아 정부 주도하의 생명보험사 설립, PPP(민관협력) 법령 수립, 쌀 산업에의 신용보증제도 도입 등임.
 - 이밖에도 사업주체에 관한 양국 공동연구, 상호 국가방문 등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 관료들의 역량과 주인의식이 제고됨.

- KSP의 향후 발전방향
 - 향추안나론 경제재정부 차관 겸 최고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캄보디아 사업 진행의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향후에도 고위정책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KSP 사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양 국가 연구진의 높은 책임의식과 헌신, 수차례에 걸친 캄보디아 방문을 통해 축적된 경제 기반 데이터, KDI의 효율적인 KSP 경영 능력 등이 KSP 성공의 주된 요인이 될 것임.

발표 4. KSP 사업 성과로 시작된 미주개발은행 (IDB) 프로젝트: 한국전력공사의 사례

임흥빈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개발처

- 한국전력공사는 2011년 3월,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청이 미주개발은행 (IDB) 차관으로 실시한 배전망 개선사업을 수주함.
 - 에디 마르티네즈 무역부 장관은 2008년 1월 기획재정부의 도미니카공화국 KSP 협력대상국 선정 이후인 2008년 3월, '전력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자문을 요청했으며, 2009년 4월 KSP에 한국전력공사 연구진이 참여하게 됨.
 - 2009년 도미니카공화국 KSP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전력체계 개관과 현안과제', '발전부분의 문제점과 해법', '배전부분의 문제점과 해법' 등을 주제로 진행
 - 도미니카공화국 KSP는 전력체계 개선을 위한 공식적인 법제화, 전기요금 인상 등의 정책에 반영됨.
- 도미니카공화국의 배전망 개선사업
 - 2011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계약 기간 동안 4천5백 만 달러 예산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산티아고, 산 크리스토팔, 에스 테 II 등 3개 지역에 중저압 배전설비 개선사업이 추진됨.
- 한국전력공사의 수주 성공 요인은 1)인적 네트워크 및 사업 정보 활용, 2)최적화된 사업조달체계 및 입찰 경쟁자 분석, 3)신뢰할 만한 하도급업자, 4)사업 품질 제고 등임.
 - 한전은 도미니카공화국 KSP 사업에 참여하면서 현지의 주요한 인적 네트워크 및 사업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

- 한전은 최적화된 사업조달체계를 통해 현지 사업 실태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입찰 경쟁자 분석을 통해 경쟁적인 가격을 제안하였음.
- 우수한 현지 건설 업체와의 하청계약을 통해 입찰 경쟁력을 높였음.
- 한국에서 양질의 중저압 배전설비 부품을 제공하여 사업의 질을 제고함.

- 둘째 날, 7월 11일(목) -

주제별 세션. KSP와 경제협력

주제 1. 정보기술 (IT)

□ 정보기술(IT)세션에서는 KSP 모듈화 과제인 '한국의 전자정부 제도'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2012년 KSP 정책자문사업 중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에티오피아, 미얀마, 온두라스의 세 개 국가의 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

- 또한, KSP가 해당 국가와 한국 간의 경제협력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함

- 지경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본부장, 이영범 건국대학교 부교수, 한필순 한국IT감리컨설팅 부사장, 차승현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운영연합 차장, 임종원 삼성 SDS 차장, 박성수 LG CNS 그룹장, 노민주 SK C&C 수석컨설턴트 등 정보기술(IT) 관련 학계, 공공기관, 유관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참여, 정보통신 분야 KSP 효과의 민간부문 확대 방안을 모색

□ 김영범 건국대학교 교수는 한국 전자정부의 역사와 발전사례 평가를 통해 전자정부 발전을 계획 또는 추진하고 있는 협력대상국에게 관련 정책 추진의 시사점을 제공함.

○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전산화 추진을 시작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전자정부 사업이 추진된 한국은 이후, 1983년의 '국가 기간 전산망 사업', 1998년의 '사이버 한국 21'로 정보화 프로젝트를 위한 연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함.

- 한국 전자정부 사례의 시사점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의해 활용영역이 확대되고 기술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임.
- 정보 사회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인프라, 서비스 및 혁신 분야의 민간기업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음.

□ 한필순 한국 IT 감리컨설팅 부사장은 2012년 KSP 정책자문사업으로 진행된 에티오피아의 전자정부 및 IT기술 도입 전략 수립 사례에 관해 논의함.

- 에티오피아 정보통신부는 2011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에 착수, 한국 모델에 기반한 국가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통신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책 수립을 자문
- 에티오피아는 e-Office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국가 정보화 성과 평가 시스템 및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2011년 7.5%의 경제성장률을 이룬 에티오피아에는 전자정부 및 IT기술 수요가 있으며, 2013년 6월 주 4회의 홍콩 경유 한-에티오피아 노선 취항 이후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분야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할 것으로 기대됨.

□ 차승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 차장은 미얀마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세관 자동화 정책자문사업의 성과와 과제에 관해 논의함.

- 본 사업을 통해 1)미얀마 관세청과의 협력 수준이 향상되었고, 2)미얀마 관세청은 한국의 관세 행정화 정책 제언을 검토 및 실행 준비 중에 있으며, 3)미얀마 관세청과 당사 간(한국 관세청 보증) 전자통관시스템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음.

- 한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첫째, 미얀마 관세청이 시스템 개발자로서 이익을 얻고, 둘째, 미얀마와의 무역에 참여하는 한국의 기업과 관세청이 현대화된 관세 시스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셋째, 미얀마 경제 발전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임종원 삼성 SDS 차장은 온두라스의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과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 연구진들은 한국 조달청 선진화 사례 분석을 토대로 온두라스 조달청(ONCAE)에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
- 성공적인 전자조달 시스템은 범정부적 추진 체계 및 전자조달 기반 강화를 통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본 정책자문사업의 목표는 온두라스 정부대표포털, 전자조달, 전자통관의 정책 방향 제시, 공공 서비스 분야 전자정부 실현 및 국가경제발전예의 기여 및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 분야 경제협력강화에 있음.

주제별 세션. KSP와 경제협력

주제 2. 금융

□ 금융세션에서는 1980년대 한국의 안정화정책에 관한 KSP 모듈화 연구 결과 발표 및 2012년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금융 분야의 인도네시아, 몽골, 탄자니아 등 세 개 국가 사례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거시경제연구부장, 전성준 코리아크레딧뷰로 차장, 이시욱 명지대학교 교수, 오승곤 예금보험공사 선임연구위원, 이창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실장, 장욱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등 금융 관련 학계, 공공기관, 유관 민간기업 전문가가 참여

- 또한, 발표에 참여한 코리아크레딧뷰로와 한국예금보험공사 사례를 통해 향후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거시경제연구부장은 한국의 안정화정책에 대한 모듈화 발표를 통해 안정화 종합시책의 성과에 관해 논의함.

○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부작용 문제에 당면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1980년대까지 미루어진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 실시 이후 경제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음.

- 긴축 재정정책과 긴축 통화정책 등을 시행, 경제안정화의 핵심인 만성적 인플레이션 해소 도모
 - 시장 중심의 경제운영 원칙 확립을 위해 금융제도 및 산업 부문 개혁과 경쟁촉진 및 분배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주도 산업정책을 축소
 - 경쟁촉진과 소비기회 확대를 위해 수입자유화 시작
- 전성준 코리아크레딧뷰로 차장은 2012년 인도네시아 KSP 정책자문사업의 신용평가 등록데이터의 품질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한국의 CB구축 경험과 다년간의 데이터 품질 향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용평가 등록 데이터 품질 향상 방안을 제시함.
- 첫째, 기본 보유 데이터 클리닝과 매칭 로직의 지속적 개선 등 차주식별문제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 둘째, 중앙은행 내부에서 활용 중인 차주식별번호인 DIN(Debtor Identification Number)에 대한 확인 절차와 DIN 검증 및 데이터 적재 프로세스의 개선을 포함, 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한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필요
 - 셋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조직과 시스템 구축 필요
- 이시욱 명지대학교 교수는 2012년 몽골 KSP 정책자문사업의 외환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모형 개발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몽골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세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함.
- 첫째, 몽골 KSP를 통해 개발된 조기경보모형의 운용 및 신호 추출법에 따라 외환위기에 대한 조기경보모형이 구축되면

종합선행지표는 향후 위기 발생가능성에 대한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적절한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음.

- 둘째, 조기경보모형에 의한 정량적인 위기에측과 판단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성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담당할 조직과 인력 확보를 통해 외환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셋째, 위기원인이 될 수 있는 급격한 자본유입과 국내신용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사전적 위기방지 정책이 필요함.

□ 오승곤 예금보험공사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 탄자니아 KSP 정책자문사업의 예금보험시스템 현대화에 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탄자니아의 효과적인 예금보험제도 실행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 현재 탄자니아 예금보험위원회(DIB)는 중앙은행의 IT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임.
- 정부와 중앙은행 고위급들의 연설, 보도자료 등으로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예금보험제도의 효과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예금대지급 이외의 부실정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마련이 필요함.

주제별 세션. KSP와 경제협력

주제 3. 사회간접자본(SOC) 및 산업기반 조성

□ SOC 세션에서는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KSP 모듈화 연구 결과 발표 및 2012년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SOC 분야의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사례, 2011년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중 베트남 사례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 원장, 문정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임덕순 국제이노폴리스연구소 대표이사, 오영권 신용보증기금 팀장, 전형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류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구위원 등 SOC 관련 학계, 공공기관, 유관 민간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 금융 분야 KSP의 효과의 민간부문 확대 방안을 모색함.

□ 문정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모듈화 발표를 통해, 다자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나 수요처인 개도국의 관심 및 현지 정책화 가능성이 높은 한국의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국토 및 지역정책 경험을 소개하는 한편, 한국의 국토종합계획의 성공요인에 관해 논의함.

- 적절한 시기별 목표 수립 및 전략 추진을 통해 지표적인 측면의 양적 성장과 효율적인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이 지속되고 있으나, 지속가능성 확보, 참여 강화 및 갈등 완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임덕순 국제이노폴리스연구소 대표이사는 2012년 콜롬비아 KSP 정책자문사업의 과학기술단지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과학기술단지 구축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콜롬비아 정부가 산학연 혁신자원의 정도를 측정하는 양적 지표 및 산학연 협력 등의 질적 지표를 설정, 자국 실정에 적합한 기술단지의 개념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 한국은 지역혁신시스템 정책 및 과학기술단지 정책의 시초인 1973년 대덕연구단지 구상을 출발점으로, 2000년대 혁신클러스터 패러다임의 등장 이후 특별법에 의거한 대덕연구개발특구 설립, 지자체 차원의 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한·콜롬비아 기술정책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경험 공유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

□ 오영권 신용보증기금 팀장은 2012 카자흐스탄 KSP 정책자문사업의 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카자흐스탄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의 SOC신용보증제도 등 현지에 적합한 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 체력이 약한 민간부문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소규모 복지 시설 등에 필요한 금융조달액 전체에 대해 100%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되, 운영에 있어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형식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이후 경험을 충분히 쌓은 현지 민간부문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전형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2011년 베트남 KSP 정책 자문사업의 베트남 항만 현대화 전략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베트남 항만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항만 개발 및 현대화 추진을 위한 항만 개발 기획과 집행의 절차, 외자를 포함한 각종 투자자금의 조달과 관련한 법령, 항만의 개발과 기관들의 역할 등을 살펴봄.
- 항만 개발은 배후지역의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철도, 도로 등을 포함한 연계교통망 체계를 고려해 이루어져야 하며, 중복되거나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취약한 국가재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과 외자 유치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법령을 시급히 정비해야 함.